

논술고사 출제 의도 및 답안 (인문계열 I)

문항 1

[문항 1] 제시문 [가] ~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의 ‘복종’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두 가지 감시 기제를 제시문 [나]에서 찾아 비교하십시오. [20점]
- (2) 제시문 [가]의 마녀사냥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제시문 [다]의 채식주의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해석하십시오. [20점]

문항 1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근대 사회 형성기로부터 정보 혁명 시대라 일컬어지는 현재까지 관통되는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집단과 개인, 감시와 복종, 매체의 변화와 감시 체제를 다루고 있는 세 편의 글을 읽고, 상호 관련되는 개념을 비교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 연결 짓고 논지를 심화시킬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응시자의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제시문 [가]는 주경철의 「우리 안의 마녀사냥」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마녀사냥을 가부장적 질서의 강화라는 페미니즘 인식뿐 아니라 근대 국가의 질서 확립을 위해 불복종의 신체를 처형함으로써 규율에 복종하는 균질적 주체를 만들어낸 기제로 파악한다.

제시문 [나]는 홍성욱의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근대 규율과 감시의 기제로서 ‘패놉티콘’을 설명하면서 1970년대 이후 정보 혁명시대에 등장한 ‘전자 패놉티콘’을 다루고 있다. 전자 패놉티콘을 통해 현대사회의 감시와 역감시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발췌한 글이다. 이 글은 동질성을 작동 원리로 하는 사회 조직과 가족 제도가 그에 부합하지 않는 소수자를 억압하는 집단주의 체제를 고발한다. 내부자는 발견하기 어려운 억압 기제를 이질적인 대상인 채식주의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을 각성시킨다.

문항 1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118-122	제시문 [가]	○
독서	서혁 외	좋은책 신사고	2019	72-76	제시문 [나]	○
문학	김동환 외	천재교과서	2019	317-321	제시문 [다]	○

문항 1 - 문항 해설

■ 문항 1-(1)

이 문항은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 근대 권력의 의미 및 규율과 통제의 기제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제시문 [가]에서 근대 권력이 강제한 복종의 의미를 설명하고, 제시문 [나]에서 그와 관련된 두 가지 감시 기제인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을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 문항 1-(2)

이 문항은 제시문 [가]의 논의를 제시문 [다]의 문학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특정 맥락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과 논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가]에서 근대국가의 질서 확립의 기제로서 마녀사냥을 이해하고 그 논의에 근거하여 제시문 [다]의 회사 조직과 가족 제도 차원에서 해당 기제가 작동되는 방식을 찾아내고 적용해야 한다. 본 문항에서는 상호 관련되는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 짓고 구체적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논지를 심화시킬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항 1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제시문 [가]의 ‘복종’ 의미 설명 - 복종은 근대 국가에서 개인을 균질적인 주체로 만들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함. - 마녀처럼 국가와 종교의 권위에서 이탈하거나 권력 당국이 부여한 질서를 거부하는 자는 억압되고 제거되어 왔음. * ‘균질’한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2점 감점	5점
	제시문 [나]의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의 비교 -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의 공통점을 서술함. : 모두 규율과 통제의 기제이며,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함.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의 차이점을 서술함. : 패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이라면, 전자 패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을 갖고 있음.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지구적임. * 근대 권력이 균질한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사회를 상징하는 통제의 기제가 바로 ‘패놉티콘’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3점 감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5점
1-(2)	제시문 [가]에서 마녀사냥의 논의 이해 - 근대국가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균질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기제로서 마녀사냥을 이해함. - 질서 부여는 거부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나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에 의한 비판을 제기	4점
	제시문 [다]에서 채식주의에 대한 회사(사회)에서의 규율 작동 방식 해석 및 논증 -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이질적인 존재인 채식주의자를 타자화함으로써 집단 내부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확인함. - 집단주의를 강제하는 조직 내 규율 권력은 근대 마녀사냥의 기제와 다름없음을 논증함.	6점
	제시문 [다]에서 채식주의에 대한 아버지(가족)의 규율 작동 방식 해석 및 논증 - 영혜에게 폭력적인 아버지는 가족 공동체 및 사회에 내재한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대변함. - 집단주의를 강제하는 가족 제도의 규율 권력은 채식으로써 그에 저항하는 불복종의 신체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복종시키려는 근대 마녀사냥의 기제와 다름없음을 논증함.	6점
	형식의 완결성 -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	4점

문항 1 - 예시 답안

■ 문항 1-(1)

제시문 [가]에서 기술하고 있는 복종은 근대 권력 당국이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균질적 영혼’ 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국가에서 개인은 균질적인 주체인 국민으로 만들어지고 통제된다. 마녀처럼 국가와 종교의 권위에서 이탈하거나 권력 당국이 부여한 질서를 거부하는 자는 억압되고 제거되었다.

근대 권력이 균질적인 다수를 감시하고 규율 사회를 상징하는 통제의 기제가 바로 제시문 [나]에서 언급한 ‘패놉티콘’ 이다. 원형의 사설 교도소인 패놉티콘은 바로 근대적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축물이며,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정보 혁명 시대에 등장한 또 하나의 감시 기제가 ‘전자 패놉티콘’ 이다.

패놉티콘과 전자 패놉티콘은 모두 규율과 통제 의 기제이며, 불확실성과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패놉티콘은 시선을 통해 작동되는 반면 전자 패놉티콘에서는 정보가 그러한 기능을 하며, 패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패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은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 문항 1-(2)

제시문 [가]에서는 마녀사냥이 근대의 국가 질서 강화를 위해 거부하는 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함으로써 규율에 복종하는 균질적 주체를 만들어낸 기제라고 본다.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에서 근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이루어진 대량학살이었으며, 희생자의 대다수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근대에 강화된 가부장적 규범의 폭력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 부부 동반 저녁 식사 자리는 남편의 공적 활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자리에서 유일한 채식주의자 영혜는 이질적인 존재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모두가 공유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영혜는 공동체의 화합에 균열을 가하는 위험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채식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로, 채식주의자는 “원만하”지 못한 자로 조롱과 억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질적인 대상을 타자화함으로써 사람들은 집단의 결속을 다지며 동질성을 확인한다.

특히 영혜에게 노골적으로 육식을 강요하는 가족은 더욱 억압적이다. 출가한 딸에게까지 미치는 아버지의 폭력적 권력은 가부장적 질서를 대변한다. 근대 초 가부장적 질서가 굳건해졌다는 제시문 [가]의 의견에 따르면, 가족 내부의 규율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강제적으로 복종시키려는 가부장의 권력은 제도로서의 가족이 국가의 질서를 내재화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제시문 [다]에서 회사 조직이든 가족 제도든 집단주의를 강제하는 규율 권력은 채식으로써 그에 저항하는 불복종의 신체를 억압하는 방식을 통해 구성원들의 복종을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제시문 [가]의 마녀사냥이라는 기제와 다름없다.

문항 2

[문항 2] 제시문 [라]에서 파악한 ‘시각’의 특성과 제시문 [마]의 ‘보는 것’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십시오. [30점]

문항 2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인간의 시각에 대한 서양의 과학적 실험과 본다는 것에 대한 동양의 성찰을 담은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뇌가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특징을 제시문 [라]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제시문 [마]에서 눈이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여 눈은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것과 그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찾아내고,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코, 귀 등의 다른 감각기관으로도 세상을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 분석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문항 2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국어	박안수 외	비상교육	2018	178-182	제시문 [라]	○
문학	류수열 외	금성출판사	2019	30-31	제시문 [마]	○

문항 2 - 문항 해설

제시문 [라]에 나타난 ‘시각의 특성’과 제시문 [마]의 ‘보는 것’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문항이다. 제시문 [라]에서는 인간의 뇌가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적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마]에서는 요술을 보고 믿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눈을 통해 본다는 것이 완전하지 않으며 눈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제시문 [마]는 본다는 의미를 확장해서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코, 귀 등의 감각기관도 세상을 잘 인지할 수 있음을 통해 ‘보는 것’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문항의 답을 도출할 수 있다.

문항 2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제시문 [라]에서 ‘무주의 맹시’의 원인으로 뇌가 많은 정보 가운데 선택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시각의 특성을 설명함.	10점
	제시문 [라]에서 시각의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 그리고 엄청난 융통성은 뇌의 전략임을 설명함.	5점
	제시문 [마]에서 눈은 스스로 속일 수 있기에 ‘보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과신하는 것을 경계하는 태도를 설명함.	10점
	제시문 [마]에서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코, 귀 등의 다른 감각기관 등과 함께 세상을 더 잘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통찰적 태도를 설명함.	5점

문항 2 - 예시 답안

제시문 [라]는 시각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 연구자들의 실험은 인간의 뇌가 ‘무주의 맹시’를 수행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이는 본 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가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정보를 선택과 집중 그리고 적당한 무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뇌가 수많은 정보를 다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행하는 전략적 행위이다.

제시문 [마]는 ‘보는 것’의 한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보는 것’은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제시문 [마]는 요술을 보고 믿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을 믿을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눈을 통해 본다는 것이 완전하지 않으며 눈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 속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제시문 [마]는 눈뿐만 아니라 손, 발, 코, 귀 등의 감각기관도 세상을 잘 인지할 수 있음을 통해 ‘보는 것’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결국 제시문 [마]는 눈 밝은 것을 경계하고, 좀 더 종합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약하자면 제시문 [라]에서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뇌의 인지작용으로서 ‘시각’의 불완전성이라는 특성을, 제시문 [마]에서는 눈은 스스로 속일 수 있기에 그 한계를 인정하고, 눈을 과신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다른 감각기관 등과 함께 세상을 더 잘 보고 인식할 수 있다는 통찰적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문항 3

[문항 3] 제시문 [바]의 ①-②의 관계와 제시문 [사]의 ③-④의 관계를 대비하여 논하시오. [30점]

문항 3 -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과학적으로 발견한 자연적 사실을 근거로 남녀 성차와 같은 사회현상을 판단 또는 해석하는 틀로 삼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을 파악하고, 자연적 사실로 사회의 통념을 정당화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요구한다. 과학을 가치중립적이고 절대적 진리로 정당화하기보다는 과학이 우리의 가치관 또는 사회적 사실을 전제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개방적 태도가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과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문항이다. 과학과 자연적 사실,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사실이라는 유사한 개념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제시문을 읽고 비교함으로써 다른 입장이 반영된 글을 해석하는 능력과 더불어 기본 영어 독해력까지도 요구되는 문항이다.

문항 3 -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4] “영어과 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영어 독해와 작문	안병규 외	천재교육	2018	13-14	제시문 [바]	○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32-35	제시문 [사]	○

문항 3 - 문항 해설

이 문항에서는 영어 지문 제시문 [바]의 ‘science’ 와 우리말 지문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 이라는 유사한 개념이 두 제시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바]는 1890년대 미국 대법원의 관세 부과 판결을 중심으로 토마토가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과일이라는 과학적 정의와 토마토를 채소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사회적 관습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인 대상 토마토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과학적 정의와 사회적 관습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관세 부가라는 사회적 행위를 근거로 토마토가 관세법 상으로는 채소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맥락

에서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정의에 따른 과일이라는 토마토의 자연적 사실과 채소로 소비되는 사회적 사실이 별개의 독립적 범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학은 토마토를 식물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체제로서 가치중립적이다. 반면 제시문 [사]에서는 암컷 영장류를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적 발견의 결과물인 자연적 사실이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으나, 제인 구달과 같은 여성 영장류학자들의 연구 결과 새롭게 발견된 암컷 영장류에 대한 자연적 사실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바]의 자연적 사실은 제시문 [사]의 토마토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정의와는 달리 연구의 시작점에 이미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사실이 전제된 상태에서 암컷 영장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바]에서 가치중립적인 과학과 제시문 [사]의 사회적 사실에 영향을 받는 자연적 사실을 적절한 사례를 들어 비교하면 적절한 답안이 될 것이다.

문항 3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	<p>제시문 [바]의 ① science ② the daily use of tomatoes 관계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의 쟁점은 토마토가 당시 관세 부과 대상인 채소인가 비관세 대상인 과일인가에 대한 것임을 설명. - 판결의 근거는 토마토를 과일로 분류하는 과학(①)과 채소로 사용(소비)되는 사회적 관습(②)임. - 미국 대법원은 토마토에 대한 과학적 분류(과일)는 사실로 인정하나 관세법과 관련한 판결에서는 채소로 사용(소비)되는 사회적 관습을 우선 시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판결함. - 제시문 [가]에서 과학과 사회적 관습은 상호독립적인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고, 여기서 과학은 식물 분류 기준이라는 가치중립적인 (정상)과학임. <p>제시문 [사]의 ③ 자연적 사실 ④ 사회적 사실 설명 관계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로 암컷 영장류의 동물적 특성이 모성성과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임을 주장했고, 이 연구 결과는 새로운 발견의 결과물로서 자연적 사실(③)로 확립됨. - 암컷 영장류에 대한 확립된 자연적 사실은 인간사회의 남녀 성차를 자연 속 동물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틀을 마련했고, 남녀의 성차는 사회적 사실(④)이 됨. - 그 후 여성 연구자들(제인 구달 등)이 암컷 영장류 중 도구를 사용하고 성적으로도 적극적인 개체가 있다는 새로운 자연적 사실을 발견함. - 암컷 영장류에 대한 새로운 자연적 사실 발견은 암컷 영장류에 대한 기존의 자연적 사실이 사회적으로 통용된 남녀 성차에 근거한 선별적 연구 결과이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 - 그 결과 암컷 영장류의 성적 특성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에 이미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사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10점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제시문 [사]에서 자연적 사실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 사실이 반영된 결과임.</p> <p>제시문 [바]의 ‘① science - ② the daily use of tomatoes’와 제시문 [사]의 ‘③ 자연적 사실 - ④ 사회적 사실’ 관계 대비</p> <p>- 제시문 [바]는 미국 대법원이 재판의 쟁점인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과학적 정의와 사회적 관습을 제시했음을 보여줌. 이 맥락에서는 가치중립적인 과학적 정의에 따른 과일이라는 토마토에 대한 자연적 사실과 채소로 소비되는 사회적 사실이 별개의 독립적 범주로 제시됨.</p> <p>- 제시문 [사]는 남녀 성차를 정당화 하는 판단 기준으로 자연적 사실을 제시했음을 보여줌. 이 맥락에서는 자연에서 발견된 성차에 대한 자연적 사실과 이에 대한 진화론적인 해석이 실상 이미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음.</p> <p>- 제시문 [가]에서는 관세 부과라는 사회적 제도에 적합한 판단 기준으로 과학적 분류보다는 사회적 사실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p> <p>- 제시문 [나]에서는 남녀 성차 같은 사회현상을 해석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자연적 사실이 오히려 남녀 성차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인 사고를 정당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 이유로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기존의 사고 틀을 지적하고 있음.</p> <p>- 제시문 [바]의 과학과 사회적 관습은 각각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과 유사하나, 제시문 [바]의 ‘science’가 가치중립적으로 제시되고 사회적 관습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제시된 반면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은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 사실을 근거로 자연현상을 해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다름.</p> <p>-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비교함으로써 자연적 사실이 가치중립적일 수 있으나, 사회현상을 설명을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자연적 사실의 발견 과정 및 그 전제나 해석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확립된 자연적 사실의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새로운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p>	15점
	<p>형식의 완결성</p> <p>- 답안 서술 구조의 완결성, 어휘 및 문장 전체의 표현력, 분량 배분</p>	5점

문항 3 - 예시 답안

제시문 [바]는 1890년대 미국 대법원의 관세 부과 판결을 중심으로 토마토가 식물학적 분류에 따라 과일이라는 과학적 정의와 토마토를 채소로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사회적 관습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재판의 쟁점인 대상 토마토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과학적 정의와 사회적 관습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관세 부가라는 상황 속에서 토마토가 관세법상으로는 채소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맥락에서는 가치중립적인 과

학적 정의에 따른 과일이라는 토마토의 자연적 사실과 채소로 소비되는 사회적 사실이 별개의 독립적 범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과학은 토마토를 식물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서 가치중립적이다.

반면 제시문 [사]는 남성 영장류학자들이 연구한 암컷 영장류의 특징에 수동적 성적 특성만 있으며, 이것이 자연적 사실로 확립되었음을 주장한다. 이 자연적 사실은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현상을 동물의 행동으로 설명하려는 진화론적 설명 근거가 되었고, 그 결과 남녀의 성차가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차후 여성 영장류학자들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수컷 영장류의 성적 특성이 암컷 영장류의 일부 개체에서도 발견됨으로써 기존 자연적 사실과 이를 기반으로 확립된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반성이 나타났다. 즉, 남성 연구자들의 암컷 영장류에 대한 연구가 당시 통용된 남녀 성차라는 사회적 인식이 개입한 선별적 연구 결과일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일어난 것이다. 이 맥락에서는 자연적 사실이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 사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바]의 과학과 사회적 관습은 각각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과 사회적 사실과 유사하게 보인다. 그러나 제시문 [바]의 과학이 가치중립적으로 제시되고 사회적 관습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상정된 반면, 제시문 [사]의 자연적 사실은 사회적 인식이 개입한 선별적 연구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제시문 [사]는 자연적 사실이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사회적 사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사회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순환적인 구조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례에서 드러나는 바는 과학이나 자연적 사실이 가치중립적일 수 있으나, 사회 생물학과 같이 자연적 사실에 기초하여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사실의 발견 과정 및 전제나 해석 방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증명된 자연적 사실의 체제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새로운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